

檢 칼끝 친신일 '정조준'하나

(세종나모 회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6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3라운드' 개시를 의미한다.

검찰이 3라운드 수사의 첫 대상으로 서울지방국세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친신일 세종나모 회장 등이 연루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같은 권력기관인 세무당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박했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성 있는 단서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와중에도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병행해 왔다. 특히 흥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역시 친 회장을 출국금지한 뒤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을 출국했을 리 없다"고 밝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결국,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과 당시 담당 간부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국제정 인사를 불러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검찰은 보강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친 회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재 대선자금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될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 회장에서부터 세무조사

■ '박연차 게이트' 수사 3라운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단서 포착한 듯 정치인·지자체장 등 조사 이뤄질 지 관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실제 전화를 걸었다는 정두인

이박에 박 회장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조사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가 일단 막힌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신병처리 일정 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3라운드 수사가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권 여사 재조사 등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어 노 전 대통령 관련 일정은 다소 연기될 수도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각종 로비 의혹 수사가 두-트랙(Two-Track)으로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월 임시국회 때문에 소환이 쉽지 않았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재점화하고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로비 의혹 규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현 검찰·경찰·법원 및 국가정보원 최고위급 인사 등을 상대로 한 박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5월 황금연휴를 맞아 하루 최대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들었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이 평일인 6일 오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비를 맡은 전경과 노 전 대통령 생가복원 공사장의 인부들만 보일뿐 한산한 모습이다. /연남뉴스

盧 "100만달러는 자연 채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 29일 대통령 관저로 건넨 100만 달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연 채무적 성격을 지녔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고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검찰이 정확한 의미를 묻자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자연채무란 채무자가 임의 변제할 수 있지만 채권자 측에서 먼저 갚

이라고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채무를 뜻한다. 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인 '소권(訴權)'이 없는 채무를 말하며 우리 민법이 자연채무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미처 갚지 못한 빚'이 있어 100만 달러를 아내 권 양숙 여사가 박 회장한테 부탁하고 받아서 사용했다고 해명했었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미처 갚지 못한 빚'이 꼭 자연채무라는 뜻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채무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과거 정치활동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거나 신세를 졌던 당시로는 그것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쪽은 잘 돼 있고 저쪽은 처지가 어려워졌다면 갚아야 할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당하거나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나 상한 부담을 느끼는 성질의 채무 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 변호사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게 검찰조사 때까지도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의 두루뭉술한 설명만 듣고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검찰이 무슨 빚이냐고 물으니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론적 답변(자연채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정리가 되는대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남뉴스

'親朴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 급부상

이대통령 - 박대표 계파 초월 인사 추진

한나라 '쇄신 폭풍'... 내부 갈등도 불거져

이처럼 당의 쇄신 및 화합 방향이 제시됐지만, 계파별로 다양한 주문이 쏟아지는 등 한나라당 내 쇄신론의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4·29 재보선 패배 이후 당 수습책으로 '쇄신과 단합'을 꺼내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박회대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쇄신과 단합 두 가지를 대표 중심으로 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박 대표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성과를 뛰어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여당은 원래 계파색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대해 사실상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또 당 쇄신특위 위원장에 당내 소장파 리더격인 3선의 원희룡 의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친이(친이명박) 진영 일부 및 소장그룹에서 조기 전당대회 문제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고,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는 '김무성 원내대표론'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당 쇄신과 관련해 친이 진영의 일치된 목소리는 찾기가 힘들다. 당장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의 이날 모임에서 남산토론이 벌어졌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보선 책임론, 조기 전당대회론, 김무성 원내대표 불가론 등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더욱이 친박계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 당 화합을 도모하려는 주류 측 움직임에 대해 친박계 일부 의원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신뢰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떤 조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부겸·이강래·이종걸 3파전

민주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 돌입



김부겸 의원 | 이강래 의원 | 이종걸 의원

민주당이 6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원내대표 경선전에 본격 돌입했다.

현재 주류측의 김부겸 의원과 정동영계의 이강래 의원, 비주류 측의 이종걸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의 진로와 정체성 등을 놓고 불꽃튀는 경쟁이 점화됐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김부겸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으로 '예비내각제'를 제시했다. 현 정조위원장 중심의 정책위원회 체계를 확대 개편, 분야별 예비 장관을 임명해 수권야당으로서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7일경 후보등록을 준비 중인 이강래 의원은 '대안 있는

강한 야당'을 슬로건으로 내놓은 상황.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이 의원은 연말까지 당 지지율을 25%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 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당의 쇄신과 변화를 앞세운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출마선언후 후보로 등록된 이 의원은 "밖으로는 현 정권에 무기력하고, 안으로는 독단적 당 운영의 모습을 보인 정 대표 체제의 편협한 리더십으로 정권탈환은 불가능하다"며 주류를 향해 일격을 가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복сын 재선의 박지원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설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평가 라운지

광주시의회 '사교육비 경감 토론회' (사)녹색중앙회 광산지부 오늘 창립

○~광주시의회는 7일 오후 2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사교육비 경감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대중 광주·전남교육연대 정책위원의 '사교육비 경감 및 공공육 활성화 방안', 이성일 광주외국어교육협회회장이 '사교육 현실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다.

이와 최은상 참교육학부모회장, 정석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 조우성 기독교사회복지 광주지부 사무처장, 백우선 학원연합회 수리교육분과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 토론을 벌인다.

○~선진 미래사회를 여는 시민연대 (사)녹색중앙회 광산지부(지부장 유헌호)는 7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채식부채 '호밀과 콩'에서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창립대회를 갖는다.

광산지부는 창립선언문에서 "시대와 지역이 요청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스스로 해결해 광산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산지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곡토 개발, 영산강 살리기, 푸른 숲 가꾸기, 생활쓰레기 청소 등 실천 활동과 녹색성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교육 홍보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박영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건설(토목)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서 및 지원자격

구분	인원	응시자격	비고	
기술직	공무	00명	대졸이상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우대
	공사	00명	초대졸이상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우대
관리직	관리	00명	대졸이상	상경계열 우대

2. 제출기한

--5월 10일한

3.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1차실사 : 서류전형
- 2차실사 : 면접(1차면적자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경력자는 경력력우주)

4. 제출처(메일접수)

- e-mail : dy0900@empal.com
- 인사담당 문의처 : 02-556-090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대양토건

임야급매

전남 나주 남평읍 노동리 산 72 6800평 도로접합

→매가 1억

☎016-249-8656

한정승인공고

당 양림순(680705-2558729)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재판지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재판지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 108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 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 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나안 45

공 고 인: 이충권

한정승인수리일: 2009. 4. 29

공고기간: 2009. 5. 7 ~ 2009. 7. 6

연 락 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234 이충권 (010-7749-7084)

분할합병공고

대승전기 주식회사("갑")에서는 2009년 4월 30일, 주식회사 우형("을")에서는 같은날 30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그 영인의 일부(정분산공사임)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분할되는 부분의 "갑"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기도 될 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 권자는 본 공고제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 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에 관 고함니다.

2009년 5월 4일

대승전기 주식회사
광주 서구 광천동 711-19
대표이사 김 봉 차

주식회사 우형
대구 달서구 감산동 8-3
대표이사 박 영 주

판결 공시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고21075

사 건 명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 한법률위반

피 고 인 : 이태 호, 이경 철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 한다.

2009년 5월 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검사 신희 희

영암군공고 제2008-264호

영암 군관리계획(주치장·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안) 및 (유원지·주차장·수변공원조성계획)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영암 군관리계획(주치장·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안) 및 (유원지·주차장·수변공원조성계획)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25조와 1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위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필히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및 영암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만일 이상은 불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7일

영암군수

1. 군관리계획 입안내용
○ 사 일 명 : 영암 군관리계획(주치장·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안)
○ 유 원 지 : 영암군 영암읍 화천리 418-2번지 일원
○ 용도지역 변경(안)

구 분	기 경	면 적(m ²)	면적률	구성비(%)	비고
계	19,868		19,868	100%	
유원지지역	19,126	중	19,126	-	
주차장지역	749	중	19,126	100%	

○ 도시계획시설(신설) - 교정시설(주치장) 신설 : 19,868㎡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수변공원 : 18,200㎡
※ 관련도시 계획상태(공원조성 계획)

2.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영암 군관리계획(유원지·주차장·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 토(안)별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 관련도시 계획상태(공원조성 계획)

3. 관련도시 : 광암읍사무소
4. 공고기간 : 2009. 5. 7 ~ 5. 30(14일간)
5. 광장주소 :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및 영암읍사무소
6. 주민설명회
○ 일 시 : 2009. 5. 18(수) 14:00 ○ 응 소 : 영암읍사무소 2층 회의실
7.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내 광암읍사무소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문화관광과(☎061-470-2285) 또는 영암읍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투자자모심

- 월2부 수익금지급
- 확실한 담보130%
- 안전보장 수익보장, 배당보장
- 최소 5,000만 이상 투자가능

서강파이낸셜
☎062)653-7500

목장용지급매

☎ 위 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367, 367-6, 367-9 등 10개번지

☎ 목 장 용 지 : 12343m²(3734평)

☎ 건 평 : 2350m²(약 700평), 축사(한우 약 50두 이상 사육가능), 견사 주택(104m²), 염소막사, 버서재배사 등

☎ 매 도 가 : 1억 7천만원(은행대출 1억포함)

연락처 ☎010-3617-8810